

□ 韓·中 경제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1. 韓·中 間 경제 관계의 확대

(1) 상품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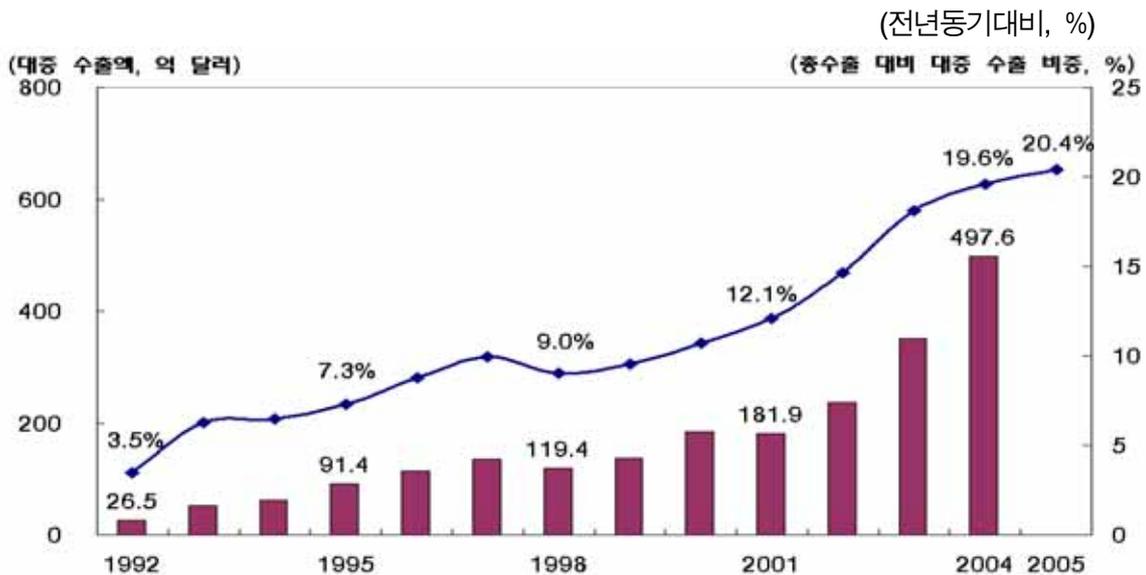
○ 중국은 한국의 교역 대상국중 총교역액, 수출, 무역수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부상함

- 총교역액 : 2004년 韓中 間 총교역액은 2004년 794억 달러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로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최대 교역국임

- 수출 :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韓中 수교 당시인 1992년의 26.5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497.6억 달러로 약 19배가 증가함

· 對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에서 19.6% (2005년 1~4월중 20.4%)로 증가함

< 對中 수출액 및 對中 수출 비중 추이 >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2005년은 1~4월 기준임.

- 무역수지 : 2004년 기준 對 중국 무역수지는 201.8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293.8억 달러의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 대상국중 1위의 무역수지 흑자국임

< 한국의 5대 교역국 (2004년 기준) >

(단위 : 억 달러)

순 위	국 가	총교역액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1	중 국	794	498	296
2	미 국	716	428	288
3	일 본	680	218	462
4	홍 콩	214	181	33
5	대 만	172	99	73

자료 : 관세청.

-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홍콩을 제외할 경우 중국의 3대 교역국이며,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의 무역 역조국에 해당됨

- 2004년 中韓간 총교역액은 901억 달러이며, 홍콩을 제외할 경우 세 번째의 교역 대상국임
- 한편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대만 (-512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34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5대 교역국 (2004년 기준) >

(단위 : 억 달러)

순 위	국 가	총교역액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1	미 국	1,697	1,250	447
2	일 본	1,679	735	944
3	홍 콩	1,127	1,009	118
4	한 국	901	278	623
5	대 만	784	136	648

자료 : 중국 해관(海關).

< 참고 > 韓中간 무역 통계 차이 발생의 원인

- 양국의 수출입 집계 기준 (FOB, CIF)의 차이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의 가감
- 경제적으로 독립국가인 홍콩을 경유한 수출입에 대한 상이한 산정 방법

(2) 자본의 이동

- (한국 → 중국으로의 자본 이동) 우리나라의 對 중국 투자는 2002년 미국을 추월하여 2004년 기준으로 전체 해외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가임
- 우리나라의 對 중국 투자(신고 기준)는 2002년 미국을 추월하여 전체 투자 대상국들중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36.3억 달러이고 이는 전체 해외 투자의 45.8%를 차지함
- 2004년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중국에 대한 투자는 총 178.7억 달러(비중 22.6%)로 미국의 171.1억 달러(비중 21.7%)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됨

< 한국의 해외투자 추이 (신고 기준) >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누 계
전 체	63.5	63.0	58.1	79.4	790.0
중 국	10.0 (15.7%)	20.8 (33.0%)	27.5 (47.3%)	36.3 (45.8%)	178.7 (22.6%)
미 국	18.4 (29.0%)	14.2 (22.6%)	7.6 (13.1%)	14.2 (17.9%)	171.1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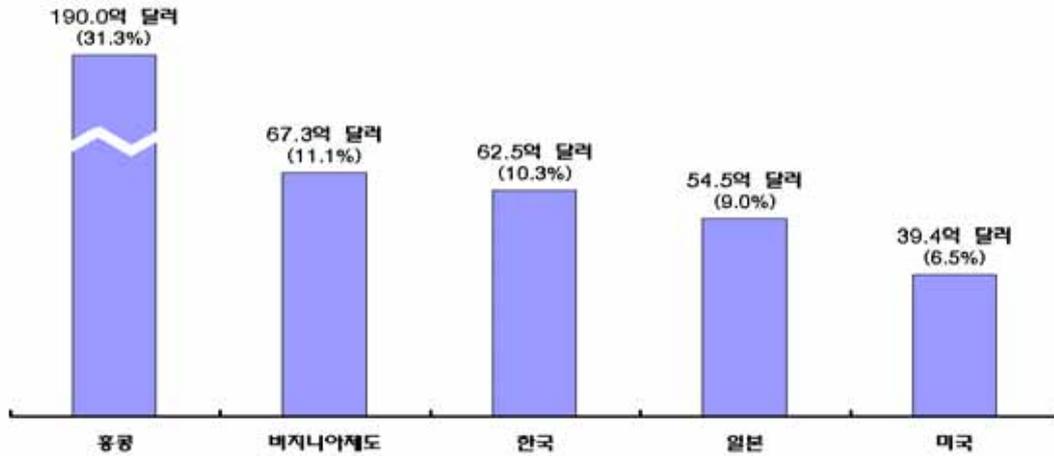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괄호 안은 전체 투자에 대한 비중이며, 누계는 1968년 이후 합계임.

-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은 실질적으로 최대의 직접 투자 국가임
 - 외형상으로 볼 경우 한국은 홍콩(1위), 버지니아제도(2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전체 FDI(606.3억 달러)의 10.3%(3위)를 차지함
 - 그러나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고, 버지니아제도의 경우에는 다국적 자본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자본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에서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04년 실행액 기준) >

(단위 : 억 달러, %)



자료 : 駐 중국 한국대사관.

주 : 괄호 안은 2004년 중국에 대한 전체 FDI 투자의 실행액에 대한 비중임.

- (중국 → 한국으로의 자본 이동) 중국의 對 한국 투자 (한국에 대한 중국의 FDI 유입 기준)는 최근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장려책에 힘입어, 2003년 0.5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11.7억 달러로 23배 이상이 증가함
- 2004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는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활용하기 위해, 전략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境外투자(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말 기준으로 6,099억 달러이며, 이는 일본의 8,377억 달러(2004년 3월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음

<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FDI) 추이 >

(단위 : 억 달러)

순위	구 분	투자 금액			총 FDI 대비 비중	
		2003	2004	누 계	2003	2004
1	미 국	12.4	47.2	324.2	19.2%	36.9%
2	일 본	5.4	22.6	156.9	8.3%	17.7%
3	네덜란드	1.6	13.1	121.5	2.5%	10.2%
4	중 국	0.5	11.7	17.0	0.8%	9.1%
	합 계	64.7	127.9	1,070.3	-	-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1) 신고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전체 투자에 대한 비중

2) 누계는 1962년 이후 2005년 3월까지의 잠정 합계임.

(3) 사람의 이동

○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다 방문국이며, 중국인들은 訪韓 외국인중 일본 다음으로 최다 입국 외국인들임

-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 출국 한국인은 883만 명이고, 이중에서 訪中 한국인은 233만명으로 우리 국민의 출국자 네 명 가운데 한명 꼴 (26.5%)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방문국별 내국인 출국 현황 (2004년 기준) >

(단위 : 만명, %)

순 위	방문국	출국 한국인수	증가율	비 중
1	중국	233	48.8	26.5
2	일본	157	9.9	17.8
3	태국	75	31.1	8.5
4	미국	63	-7.6	7.1
5	필리핀	38	28.7	4.3
총 계		883	24.5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 한편 2004년 기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중 중국인의 수는 63만명 (비중 10.8%) 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국적별 외국인 입국 현황 (2004년 기준) >

(단위 : 만명, %)

순 위	국 적	입국 외국인 수	증가율	비 중
1	일본	244	35.5	42
2	중국	63	22.4	10.8
3	미국	51	21.2	8.8
4	대만	30	56.7	5.2
5	필리핀	21	-1.5	3.7
총 계		582	22.4	100.0

자료 :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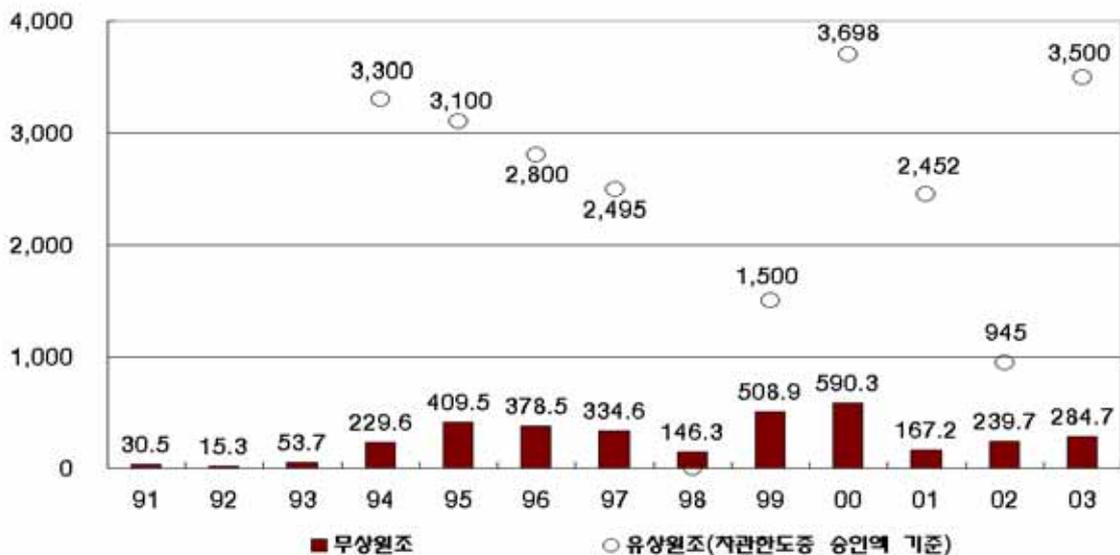
(4) 정부 차원의 경제 협력

○ 한국은 유·무상 원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

- 무상 원조 : 1991~2003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국 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¹⁾ 을 통해 총 3,389만 달러를 지원
 - 무상 원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황사, 조림 등 환경 보호, 교육, NGO 지원 등 호혜적인 분야를 위주로 추진함
 - 한편 2004년 중으로도 서부지역 조림 사업 등 4개 주요 협력 사업에 약 430만 달러를 지원 중에 있음
- 유상 원조 : 1994~2003년까지 중국 내 총 22개 사업에 2억 3,790억 달러 (승인 기준) 의 유상 원조를 지원
 - 주로 상수도, 교량, 공항,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실제 대출 누계는 2억 3,367억 달러, 회수 금액은 1억 5,509억 달러로 회수율은 66.4%에 이름

< 한국 정부의 對 중국 유·무상 원조 추이 >

(단위 : 만 달러)



자료 : 駐 중국 한국 대사관.

1) 1991년 4월 정부 차원에서 설립된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2. 韓中間 경제 교류 확대의 긍정적 효과

-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對中 수출 증가에 따르는 경제성장률 상승 (+0.7%p) 및 관련 산업에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고용 증대 효과 (94만 명)를 얻고 있음
-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4.6%중 중국과의 교역에 의해 +1.04%p, 투자 자본 이동에 의해 -0.36%p의 성장률 변화 효과에 의해 총 +0.7%p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함
 - 교역 부문 : 2004년중 對中 상품 수지 흑자로부터 경제성장률 4.6%중 1.04%p의 기여도 (22.6%의 기여율)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획득함
 - 2004년 경제 성장에 대한 상품 수출의 기여도는 8.34%p이며, 여기에 총수출에 대한 對中 수출 비중(19.6%)을 고려할 경우 對中 상품 수출의 기여도는 1.63%p임
 - 한편 같은 기간중 경제 성장에 대한 상품 수입의 기여도는 -4.50%p이며, 여기에 총수입에서 對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13.2%)을 고려할 경우 對中 상품 수입의 기여도는 -0.59%p임
 - 따라서 2004년 경제성장률 4.6% 중 약 1.04%p (기여율로는 22.6%)가 중국과의 상품 교역(수출입차)에서 발생함
 - 투자 부문 : 2004년중 중국으로의 투자 자본 이동으로 경제성장률이 0.36%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한국의 對中 해외투자는 36.3억 달러이고, 중국의 對韓 투자 규모는 11.7억 달러이므로 순 투자는 24.6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 통계기준)임
 - 이를 2004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 후 실질 가치화하면 韓中間 자본 이동상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투자 실질 금액은 2조 3,925억 원임²⁾

- 만약 2004년중 같은 규모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0.36%p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
- (국내 취업 유발 효과) 2004년 韓中間 교역에 의해 +98만 명, 투자 자본 이동에 의해 -4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로, 국내에 총 +9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됨
 - 2004년 對中 수출로 인한 취업 유발 효과는 98만 명
 - 2004년 실질 총상품 수출액 318.5조 원이며, 같은 기간 총수출액에서 對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19.6%를 고려할 경우 對中 실질 상품수출액은 62.4조 원임
 - 이에 따라 62.4조 원 × 15.7명/10억 원당 (2000년 기준 수출 부문의 취업유발계수) = 98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킴
 - 2004년 중 韓中間 투자 자본 이동에 의해 약 실업자 수는 약 4만 명
 - 2004년 對中 투자 이동 실질 금액 2조 3,925억 원에 따르는 취업감소 효과는 투자 부문의 취업유발계수(2000년 기준, 16.1명/10억 원당)를 고려할 경우 3만 8,519명임

< 참고 > 취업 유발 계수

- (의미) 최종 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
 - 취업자란 피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 한은의 고용표와 통계청의 고용표에서의 취업자는 그 개념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 (한은) 연평균 인원(man-year)의 개념으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취업자수를 산정
 - (통계청)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1명의 취업자로 산정
 - 따라서 여기서의 취업자수는 통계청 자료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2) 2004년 평균 원/달러 환율 1143.74원 (종가 기준)과 소비자물가지수 (117.6)를 고려함.

3. 韓中間 경제 교류의 전망과 부작용

(1) 韓中 경제 교류 전망

- 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이점에 따르는 낮은 물류비,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 등으로 韓中間 경제 교류 확대 지속이 전망됨
 - 한국과 중국이 동일한 한자-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 또한 인천-상해간 항공편이 1시간 50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사람과 상품의 이동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이 다른 경제권보다 유리
 - 한국의 對中 수출은 중국 내수 시장이 아닌 완성품 산업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의 의미를 가지며, 이와 같은 안정적인 국제 분업 구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우리의 근시안적인 중국 경제와의 교류 전략으로 양국간 경제 교류의 한계성이 표출될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 시장보다는, 제 3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중국 내 인건비 등 저렴한 생산 요소 비용만을 이용하고자 함
 - 중국 내 인건비, 지가 등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비용 절약을 위한 중국 진출의 메리트가 점점 상실되고 있는 추세임
 - 원부자재 위주의 對中 수출 전략은 중국의 국산화 정책으로 위협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국 경제가 단위당 노동 비용이 매우 저렴한 개발도상국 단계에 위치하고 있을뿐더러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종 완성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생산마저도 중국 내 생산으로 전환이 가능함
 - 이외에도 최근 중국 정부가 반도체(30%, 2010년 50%), 철강 제품(95%) 등 주요 자본재 및 중간재의 국산화 정책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구매선의 전환이 예상됨

(2) 韓中間 주요 경제 현안

○ 양국간의 통관, 관세 등의 무역 관련 제도의 차이점으로 교역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최근에야 비로소 WTO 체제에 편입된 중국의 낙후된 무역 시스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우리 對 중국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 자의적인 관행, 높은 수입 관세 및 수입 관련 세금 등을 지적 (한국무역협회, 2004)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지난 2000~2004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132건 중 중국의 침해가 3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

○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대만 다음으로 가장 무역 역조가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잦은 통상 마찰이 예상됨

-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주로 反덤핑 판정을 통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05년 4월 현재까지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소 건수는 28건으로 이 중에서 수입 규제중인 건수는 15건이며, 조사중인 건수가 총 6건에 해당됨

<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연도별 제소 건수 >

	2000	2001	2002	2003	2004
규제 건수	3	5	9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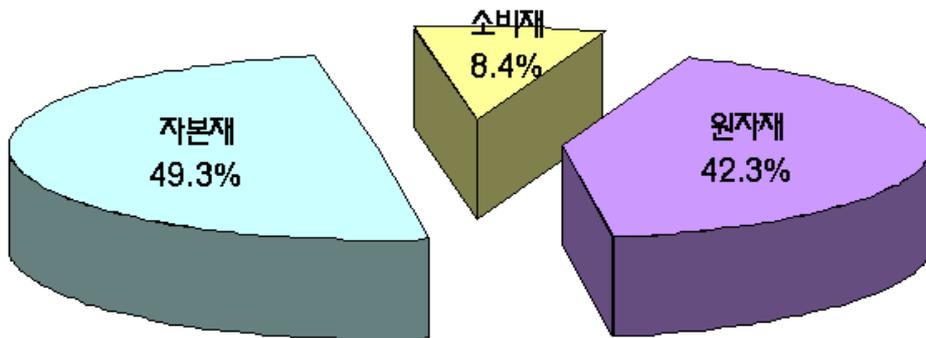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韓中 경제 교류 심화의 부작용

○ 對中 수출 의존도 심화의 부작용

- 低價 원부자재 중심의 對中 수출 산업 구조 : 현재 對中 수출의 약 92%가 원자재 및 자본재인 반면 소비재의 경우는 8%에 불과하여, 한국의 對中 수출은 중국의 완성품 산업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의 의미를 가짐
 - 특히 중국의 주력 생산 품목들이 저가 범용 제품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중간투입재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품목들도 낮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저부가가치 품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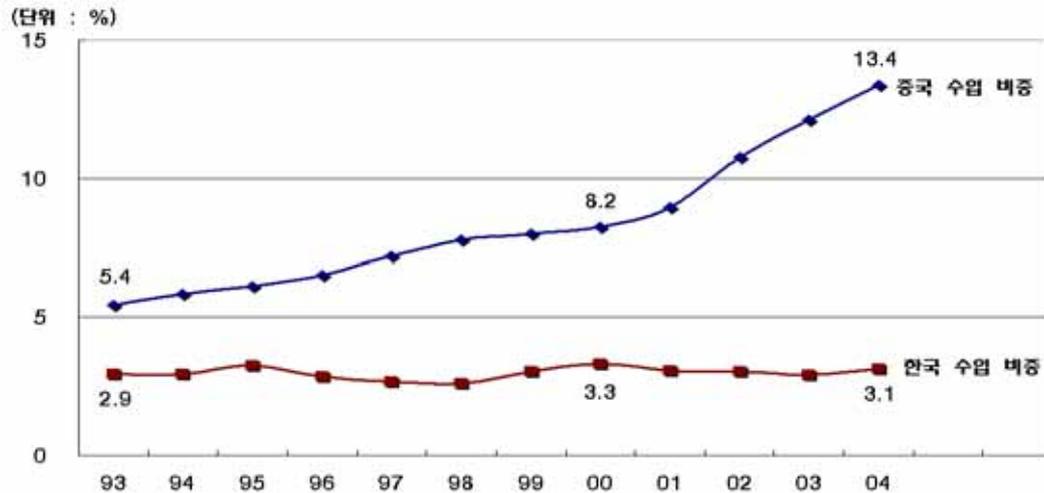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성질별 수출 (2004년 기준) >



자료 : 무역협회.

- 국내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 :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선진 경제에 대한 비중이 축소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근시안적인 이익을 쫓을 경우 이러한 분업적인 구조는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함
- 韓中間 수출 경쟁 심화 : 제3국 시장에서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韓中間 수출 경쟁의 심화가 예상됨
 -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993년 2.9%에서 2004년 3.1%로 거의 정체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제품은 5.4%에서 13.4%로 급증함

< 한국 및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주 : 위 수치는 미국 수입 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對中 투자 확대의 문제점

- 국내 제조업 공동화 : 한국에 비해 저렴한 생산 비용,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등으로 국내 자본의 對中 투자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자본 축적이 둔화되어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
 - 한국은 중국에 비해 경영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단 기간 내에 획기적인 환경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내 투자에 대한 보완 투자의 개념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대체 투자가 급증할 것이며, 특히 생산 설비의 중국 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임
 - 이는 우리 경제의 자본 축적을 둔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고실업 구조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임

- 부메랑 효과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 충당의 단계를 넘어서 많은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고 있음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1) 시사점

-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한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
 - 현재 한국 경제는 기존 주력 산업이 정체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출현을 모색하고 있는 과도기적 저성장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경제도 신경제 붕괴 이후 여전히 과잉 공급의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우려가 존재함
 - 이러한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나홀로 고성장’ 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발전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한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향후 韓中間 경제 협력은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확대에 벗어나, 양국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우선 韓中間 경제 교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韓中間의 통관, 관세 등의 무역 관련 제도의 차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통상 마찰 등의 주요 경제 현안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韓中 경제 관계의 양적인 확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경제 협력 관계가 필요함

(2) 대응 방안

○ 韓中 FTA의 적극 추진

- 韓中間 제도적 차이, 지적재산권 침해, 통상 마찰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韓中間 FTA 체결을 통한 전면적인 자유 교역 시스템이 요구됨

○ 고부가가치 완제품 중심의 對中 수출 구조로 전환

-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별 시장 수요 정보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수출 기업은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소비재 및 완성품의 수출 품목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이 쉽게 국산화할 수 없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의 對中 수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부메랑 효과가 없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對中 투자 비중 제고

-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전체의 對 중국 투자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 반면,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 80%를 상회하고 있어 지나치게 제조업 편중된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투자 대상 지역의 다변화

- 국내 기업들은 2004년중 전체 해외투자의 약 절반가량을 對 중국 투자에 할당하고 있어 지역 투자 리스크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중국 경제에 부실 채권 문제, 부동산 버블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BRICs 및 북한의 개성 공단 등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함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